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HOME \(/\)](#) > [로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 > [인천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8\)](#)

서구의회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 제2차 비교시찰

박주용 기자 | 승인 2023.10.30 16:24

전주 문화 우수성 벤치마킹...상권 활성화 등 모색



인천 서구의회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는 제2차 비교시찰을 진행했다.(사진=인천 서구의회)

인천시 서구의회 서구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지난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는 제2차 비교시찰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비교시찰은 동아시아 3개국(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매년 국가별 1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전주의 문화 우수성을 벤치마킹하고자 이뤄졌다.

연구단체는 비교시찰의 첫 목적지인 전주문화재단을 방문해 사무국장의 안내로 팔복예술공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향후 전주문화재단과 교류를 약속했다. 이후 체험박물관 전주난장을 방문, 서구의 구도심과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에는 전주시민의 특색있는 시장문화인 도깨비시장과 남부시장을 시찰했다. 도깨비시장과 바로 인접한 남부시장에서 전주시민들의 일상 및 시장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서구의 시장문화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어 방문한 한옥마을에서는 서구의 마실거리, 골목형상점가 등을 비교대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전주의 명물인 초코파이 체험을 진행했다. 서구의 브랜드 식품인 정서진 노을호떡, 정서진 아라 초콜릿을 초코파이 체험처럼 적용하는 등 인천 서구의 명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완 대표의원은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우수성을 보여주신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서구민의 문화 발전을 위해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고된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약해주신 연구단체 회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용 기자 기자

인쇄